

목어

인간교육 부재시대

교육은 한 인간을 반듯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림직하게 성장시키는데 교육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우리 나라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가정은 물론 어느 집단이나 나라 역시 참교육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가에 따라 그 구성원과 구성집단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어찌보면 지적된 바는 아니지만 지식교육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시험과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오늘날 우리 국민교육의 전부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교육의 부재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셈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식물을 치명적인 불순물을 넣는 일도 서슴지 않는 생명경시의 풍조에서부터, 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질서와 비리를 식은 죽 먹듯 저지르는 사회를 우리는 아무런 참회 없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인간 됬됨이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동양의 유·불·선 삼교가 모두 사람 인(人)됨을 먼저 세워놓고 가르침을 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재를 마련하기 이전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탄과 원망을 내뿜기 이전에 자기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생활체육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국민생활교육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요즘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검소한 생활보다는 과소비에 오히려 부러워하고, 예외나 도리보다도 완력이나 술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풍토에서 선진국은 꿈이다. 선진국은 반드시 선진국민만이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마스크 등을 중심으로 생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과 학교, 정부 등 각 분야에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국민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월드컵이 다가오고 외국인이 찾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도수(정일도량 회주·본지 논설위원)

“급한 불 껐다”... 경영 활로 모색

불교TV 50억 증자 '왜 하나'

악성부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TV가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새로운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TV는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11월 15일 신주 발행을 통해 50억원을 유상 증자하기로 결의해 마지막 악성 부채로 남아 있는 21억원의 적외금 해결제에 나선다. 이는 불교TV가 이번 유상 증자를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이후 상우 회장님과 이수덕 사장, 총지화 총리원장 등 4명의 이사가 출연한 23억5천만원으로 금용권 악성부채를 해결해 현재는 현금동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불교TV는 6월말 금회전기 빌딩 임대료 9억5천만원중 6억5천만원을 현찰로 상환하고 3억원을 광고료로 대체해 부채가 해결된 상태다. 또 7월에는 하나은행 부채 11억2천3백만원 중 7억원을 현찰로 갚고 남은 4억2천3백만원을 광고료로 대체했다. 이어 8월에는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원파이낸스의 악성부

채 20억5천만원을 현찰로 8억7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억여원의 부채를 1년내에 청산하는 조건으로 4억1천만원의 탕감 받는 등 악성 부채 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25명의 퇴직자들이 임금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해 놓은 50수신료가 8억2천만원에 달해 이것이 계속 누적될 경우 현재 총 수입중 수신료 의존도 50%를 넘는 불교TV가 또 다시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불교TV는 50억원의 증자액중 이사회로부터 6월 이후 현재까지 출연한 24억원만을 뺀 나머지 26억원 가량을 출연금 미납이사를 중심으로

출연금 미납 이사 실권주 배당 계획

실권주를 배당해 지급 확보를 한다는 전략이다. 만일 현재 총 20명의 이사에서 출연금 미납 이사 13명이 모두 돈을 내준다면 22억원 정도가 돼 퇴직자 임금 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용을 살펴보면, 신주의 발행가격은 5천원으로 현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불교TV 이사회에서 참석한 11명의 이사가 이사회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80% 주식감자로 인해 현재는 20만주만 소유했던 상태가 된다. 이 주주에게는 20주가 배당되는데 본인 이 포기를 하면 실권주로 처리돼 불교TV 이사가 매각하게 된다. 또 80% 감자된 주식이 1주가 안될 경우 단주로 처리돼 청약이 끝난뒤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교계의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 장치없이 일방적으로 감자를 단행한 것은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조 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덕 사장은 “현재 악성 부채 등으로 불교TV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3년동안 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면 주식 상장을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경영을 정상화 시켜 아픔을 함께한 주주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항의가 빚뚫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뤄볼 때 주주들이 신주 청약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미납 이사들의 실권주 매각이 절실한 상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김기재 의원 사퇴서 제출 민주당 연등회 '당혹'

새회장 김근태·조성준 의원 물망

민주당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연등회 회장 김기재의 원이 돌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연등회 회장 재추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각회장까지 맡았으며 의욕을 보였던 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자 연등회 사무국은 당황하는 표정. 이상근 사무국장은 “당에서 사퇴 반대를 두려하고 있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가 매우 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김의원의 사퇴가 확정된다고 해도 연등회의 활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등회인 김근태 최고위원이 8월 30일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추사까지 한 것으로 미뤄 다음 연등회장은 김근태의원이 맡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연등회는 4일 김근태의원이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지역행사를 뒤로 미루고 서울지역 신도회 창립 축하인사를 하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등회 사무국은 “김 최고위원이 연등회 회원으로서 불교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기재의원이 사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간사를 맡으며 사실상 연등회를 이끈 재선의 조성준의원이 회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조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 지역이 워낙 개신교세가 강한 곳이어서 ‘결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김기재의원의 사퇴 수리 여부는 김대중대통령이 미 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한나라당 불자회, 자민련 불자회가 16대 국회가 개원됐는데도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등회까지 지역활동을 못하게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nia.com)

청정심으로 읽으면 누구나 감응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도 선지도 인간의 일상사와 평상심(平常心)을 이야기한 것이다. 보통 사람도 청정심을 가지면 누구나 읽고 감응할 수 있는 시이다. 조주(趙州)선사의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의 화두를 시로 읊은 서산대사의 ‘초당영백(草堂詠柏)’과 남곡(南溪:1471~1527)의 ‘신광사(神光寺)’ 6수 가운데 한 수를 각각 살펴보자.

月圓不逾望
日中爲之傾
庭前柏樹子
獨也四時青

달은 동글어도 보름을 넘지 못하고 / 해는 정오가 되면 기울기 시작하네. / 뜰 앞에 잣나무는 / 홀로 사시상청 푸르네. (초당영백)

庭前柏樹儼成行
朝暮蕭森影轉廊
欲問西來祖師意
北山靈蕩送寒涼
월 앞의 잣나무는 의외지 늘어서 / 하루 종일 우뚝한 그림자가 회랑을 도네. /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을 물으려 하니 / 북산(北山) 신령한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보내오네. (신광사)

두 시 모두 달마대사가 선불교를 전하러 오는 ‘조사서래의’의 화두를 멋지게 시화한 작품이다. ‘초당영백’은 정형적인 화두시로 선사가 시의 형식을 빌려서 선지(禪旨)의 내용을 담아낸 인사우선(吟詩萬禪)이고, ‘신

26선시 읽기(5)

광사’는 시인의 관에서 선적 사유의 깊이를 시로 유인한 원선입시(援禪入詩)의 명품이다.

서산대사는 ‘월 앞의 잣나무는 홀로 사시상청 푸르네’ 하고 경구하였는데, 남곡은 ‘뜰 앞의 잣나무가 의외지 늘어서 하루 종일 우뚝한 그림자가 회랑을 도네’ 라고 읊어 정백(庭柏)의 무궁하고 영원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남곡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신령한 바람이 서늘한 기운을 보내오네’ 라고 하여 조사가 온 뜻이 중생의 열뇌(熱惱)를 식혀주는 신령한 바람 즉, 선풍(禪風)임을 상징하고 있다. 참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떠나 시 자체로서도 성공한 시로 선적인 함축성을 내포한 자연스러운 선기시(禪機詩) 중의 일품이다.



김형중 명성여고 교장사 문학박사

소를 탄 사람이/소의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다

서산대사가 제자인 소요 태능(逍遙太能)선사와 법장대사에게 준 ‘법장대사(法藏大師)’란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無影樹)는 혜능의 자성계에 나오는 ‘보리본수(菩提本無樹)’에서 유래한 전용선구이다. 깨달음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나 형질(亦無臺)이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이나 깨달음의 세계를 논리를 떠난

나타낸 시를 한 수 살펴보자.

新來無影樹
盡盡水中漚
可笑騎牛者
騎牛覓更牛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 / 물 속의 거품을 모두 태워 버렸네. /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소의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다.

서산대사가 제자인 소요 태능(逍遙太能)선사와 법장대사에게 준 ‘법장대사(法藏大師)’란 작품이다.

이 시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無影樹)는 혜능의 자성계에 나오는 ‘보리본수(菩提本無樹)’에서 유래한 전용선구이다. 깨달음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나 형질(亦無臺)이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이 없는 마음이나 깨달음의 세계를 논리를 떠난

격의언어이다. 화중생연(火中生蓮)이나 고목화(枯木放花)도 마찬가지이다. 서산대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그림자가 없는 나무인 ‘무영수(無影樹)’나 무근수(無根樹), 화개철수(花開鐵樹) 등으로 표현했다. ‘물 속의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네’는 마음 속의 번뇌망상과 사랑분별이 붉은 화로 속의 한 점의 눈송이처럼 [紅爐一點雪] 말끔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소를 탄 사람이 소 등에서 다시 소를 찾는다’는 뜻은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자를 상징한다. 확암(廓庵)선사의 ‘십우도(十牛圖)’를 인용한 것이다. ‘십우도송’은 선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선시를 기우계(騎牛圖)라고 부르게 하였다.

운문적인 선시의 형식은 사람을 크게 감동시키고 마음을 격발시켜서 심성을 정화하고 교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시의 체(體)는 순전히 맑고 한가함과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妙悟)를 솔직하고 천진 그대로 꾸밈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읊는 것이다. 따라서 선시를 읽는 자들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참의료의 새빛 동국이 밝힌다!

경주한방병원 9월6일 개원!

지비실천 등 서양의학의 참조화!

진료과목

- 내과: 내과, 부인과, 소아과, 침구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 양방: 가정의학과(내과, 소아과 진료가능), 재활의학과(대형물리치료실 운영)
- 특수진료센터: 중풍센터, 척추관절센터, 신후조리센터

(병원위치)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부처님의 자비인술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9월 6일 확장이전 개원한 경주한방병원에 이어 2002년 개원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이제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더 많이 더 빨리 치유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중심병원! 동서양의학이 조화된 병원! 첨단시설과 최상진료인프라가 구축된 병원!

~새천년 동국의료인이 제시하는 참의료의 새모델을 통해 자비광명의 인술이 온세상에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업그레이드 중!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http://www.dongguk.edu>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2002년 개원!

인간중심 최첨단병원의 새모델!

병원건립기금모집안내 TEL. 02)2260-3300 (병원위치)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14번지

간선개요

- 대지면적: 29,373㎡(8885.3평)
- 지하층: 지하2층, 지상12층, 옥탑2층
- 건물규모: 철근콘크리트조
- 병상 수: 800병상(양방 600, 한방 200, 중추 200병상)
- 건물면적: 10,655.18㎡(3,041.69평)
- 연 면적: 191,276.65㎡(27,611.06평)
- 지하층면적: 35,536.51㎡(10,749.75평)
- 지상층면적: 55,740.14㎡(16,861.32평)
- 승강기: 총 18대, 에스컬레이터: 12대
- 주차대수: 총 601대(지상 301대, 지하300대)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T. (054) 748-9300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T. (054) 273-8111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T. (031) 710-3700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T. (02) 3416-9700

동국대학교 LA동국로일한방병원 T. (213) 487-0110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T. (054) 770-1200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불교종합병원) T. (031) 969-6031